

第 4 回 全國特殊圖書館大會 會議錄

日 時：1965年 4月 29日~30日

場 所：中央公報館

一. 開會式

司會=崔根滿(韓國圖書館協會企劃部長) 자리도 不便하
신데 이같이 많이 參席하여 주셔서 感謝합니다. 지
금부터 1965年度 第四回 全國特殊圖書館大會를 開會
하겠습니다.

1. 國民儀禮

2. 開會辭=李鍾文(韓國圖書館協會事務局長)

本來 이자리에 本協會 會長이신 李弘植 先生任의
말씀이 제실 豫定이었으나 會長任께서 公務로 日本
에 가셨기 때문에 不得已 제가 몇마디 開會辭를 代
身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概念의 圖書館 및 圖書館學이
始作되긴 아마도 12,3年前부터가 아닌가生覺됩니다.
그동안 많은 發展을 거듭하여 지금은 四個大學에 圖
書館學科가 있고 圖書館人의 宿願이든 圖書館法과
同施行令의 制定도 實現되었습니다. 그러나 初創期
의 圖書館活動은 外來的인 制度和 思考方式으로 模
倣性을 脫皮치 못하였던 것입니다. 自己消化를 시키
지 못하고 韓國의 圖書館運動을 向上發展 시킬수 있
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韓國의인 圖書館運動의 갈길을 찾고
올바른 思考方式을 키워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圖書
館事業이 어느程度 發展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期待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꾸준한
노력이 必要하다고 生覺됩니다. 現社會의 沒理解와
푸대접에만 돌릴것이 아니라 圖書館人들이 團結하여
圖書館奉仕를 넓혀 社會의 理解를 促求하도록 하여
야 할것입니다. 이번으로 네번째의 특수도서관大會
를 맞이했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問題點을 內包하고
있는 此際에 우리는 보다넓은 發展의 기틀을 마련하
고 社會發展에 貢獻하는 바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
니다. 끝으로 奔忙하신 중에서도 意義있는 大會를
만들기 위하여 이자리에 參席하여 주신 姜周鎭 國會
圖書館長任과 여러 會員들에게 感謝를 드립니다.

二. 記念講演

姜周鎭(國會圖書館長)

第 4 回 特殊圖書館大會를 맞이하여 特殊圖書館의
發展을 爲하여 努力하시는 熱意에 感謝드리며, 제가
이자리에 參席한 것을 榮光으로 生覺합니다.

記念講演이라기 보다 한 圖書館에 從事하는 사람
의 하나로써 느끼는 점에 대해 간단히 生覺해 보고
자 합니다.

첫째로 제가 圖書館에 從事하기 以前부터 느낀 점
입니다만, 우리는 늘 機會있을 때 마다 自主性이니
民族性등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는 아마 自己나라
를 中心으로 다른 나라와 同等한 權利를 갖고, 同等
한 立場을 갖자는 것일겁니다. 이중에서도 우리가
특히 많이 듣는 것이 政治的, 民族主義입니다. 이것
은 즉 強大國이나 弱小國이거나 간에 國家的으로는
同一하다는 것이며, 곧 유엔 총회의 노력의 一部라
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엔 우리가 부르짖는
것이 經濟的 民族主義니 自主性이니 하는 것입니다.
外國이 輸出을 1億弗 하던 우리도 1億弗을 하자는
것입니다. 外國의 生産만큼 우리도 生産하자는 것이
겠지요. 이렇듯 外國의 經濟상태에 順應하여 우리의
經濟的 獨立을 얻자는 主張이 요즘 盛行하고 있습
니다.

그런데 우리 圖書館人으로는 生覺해 불만한 問題
가 있습니다. 왜 政治와 經濟的으로만 外國과 같이
同等해야 한다고 強調하면서 文化面에서는 왜 等한
하느냐 말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學者나 學生이 어
떠한 學門을 研究하던지 外國의 冊을 利用하여야 하
는데 이런데는 民族主義가 없습니까? 왜 안부르짖
습니까? 現實은 건축學을 한다면 이태리말 冊을 보
아야하고, 音樂을 한다면 오스트리아말, 美術을 工
夫하려면 佛蘭西말을 보아야만 하니 이런면에서 民
族主義는 너무 등한시 되고 있는 것입니다. 根本的
인 문제는 政治的, 經濟的인 面에 앞서 文化的인 獨
立이 필요하며 또 강조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2個月 前에 日本엘 다녀왔습니다. 日本人들
은 번역일지라고 모두 자기네 글을 갖고 研究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비로서 獨立國家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責任은 비단 우리네만이 져야할 問題는 아
닙니다. 先祖들에도 줄 있습니다. 36年 동안 日人들
에 얽매어 圖書館事業이나 出版文化가 微弱했던 것
입니다. 이러한 觀點에서 우리는 政治的 經濟的인
面에 앞서 文化面에서 獨立을 해야겠습니다. 可能한
限 文化事業에도 많은 觀心을 가지고 政策立案에 留
意되어야 할 點이라고 生覺됩니다.

오늘 이자리에 參席하신 여러 會員들께서 이러한
點에 깊은 關心을 가지고 文化面의 確固한 獨立이

루어져 비록 聽譯을 한 책이라도 우리글로 된 圖書를 가지고 일할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感謝합니다—

三. 議長選出

司會(崔根滿)=지금부터 議長選出을 하겠습니다. 方法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禧(交通公務員訓練所圖書館)=國會圖書館圖書課長으로게시는 李喆珪先生을 推戴합니다.

—一同拍手로 贊成하다—

議長(李喆珪)=여러분의 協助를 바라면서 會議을 進行하겠습니다. 會順에 따라 議題發表가 있겠습니다.

四. 議題發表

特殊圖書館의 相互貸出方案

金允泰(空軍中央圖書館圖書課長)

特殊圖書館 運營의 問題點

宋炳吉(韓國生產性本部圖書館)

特殊圖書館의 資本整理問題

司空哲(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

特殊圖書館에 있어서 藏書의 自然減少處理問題

楊炯祿(國防大學院圖書館)

特殊圖書館의 定期刊行物整理問題

鄭炳浣(國會圖書館)

第二日(4月30日) 10時續會

五. 全體會議 및 決議

議長(李喆珪)=어제 보다 參席하신분이 적은것 같습니다. 家族의인 雰圍氣에서 特殊圖書館의 當面한 問題點을 討議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民子(農林部圖書館)=所屬機關長의 認識不足으로 圖書館運營이나 對外活動에 支障이 많으니 圖書館人들이 힘을 합쳐 啓蒙運動에 힘써 주었으면 합니다.

議長(李喆珪)=各자가 屬해 있는 圖書館에서 먼저 他部處에 모범이 될수 있도록 努力하여야 할줄 압니다

鄭炳浣(國會圖書館)=圖書館法 施行令에서 司書職의 地位問題에 對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李鍾文(事務局長)=圖書館人의 處遇改善問題는 現在 度外視되고 있는것이 사실입니다. 資格證을 가진 司書를 圖書館에 配置한다고 가정하면 現在の 實情으로 人員 不足으로 不可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現施行令은 어디까지나 潛定的인 措置라고 生覺됩니다. 앞으로 專門的인 教育을 받은 사람이 제대로 待遇를 받고 圖書館奉仕를 할수 있는 날이 速히 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司空哲(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特殊圖書館大會의 發

表議題 및 發表者의 選定經緯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議長(李喆珪)=技術委員會 行政分科委員會에서 選定하였습니다.

司空哲(韓國科學技術情報센터)=적어도 大會 3.4個月前에 議題와 發表者를 選定하여 充分한 研究를 한後에 發表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더 效果的인 大會가 될줄로 生覺합니다.

崔根滿(韓國圖書館協會)=研究할 수 있는 充分한 時間을 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總會가 지난 2월에 開催되었고 技術委員會構成이 늦었고 例년에는 9월에 大會를 開催하였으나 今年에는 4월로 變更되어 計劃自體가 축박했습니다. 不得已 發表者에 대한 위촉도 지연되었습니다. 來년에는 적어도 5.6個月전에 위촉하여 充分히 研究發表토록 할 計劃입니다.

李鍾文(圖協事務局長)=圖書館法과 同施行令은 內容이 만족스럽지는 못하나 韓國의 現實에서 보면 불가항력입니다. 圖書館法이 制定된지 18個月이 되었는데 關心이 있는 사람은 勿論 圖書館科가 있는 4個 大學에서도 法의 矛盾點에 對하여 體系있게 理論을 展開한 論文이 많이 나와 文教當局이나 關係機關에 建議가 되었어야하나 그런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本大會를 通해 法 및 施行令의 綜合的인 批判이 이루어 지기를 期待합니다.

鄭炳浣(國會圖書館)=特殊圖書館의 綜合目錄과 相互貸出制度가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金允泰(空軍中央圖書館)=이 制度에 對해 贊成은 하나 지금까지 實現되지 못하는 理由는 事業을 推進할 媒介의인 機關이 없는데서 起因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各圖書館마다 事業을 可能하게 할 實務規定도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事業을 效果的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協會에서 우선 實務規定을 만들어 普及시키는 것이 先行條件이라 생각하여 이것을 案件으로 提議합니다.

議長(李喆珪)=金允泰先生의 提案에 對하여 可否를 舉手로서 採擇하는게 어떻겠습니까?

— 全員贊成으로 採擇되다 —

議長(李喆珪)=司書職의 職制를 確立하자는 意見이 나왔고 이것이 圖書館人의 現案問題이니 協會는 勿論 여러분들의 最善의 努力을 기울여 줄 것을 期待합니다. 豫定된 時間이 지난것 같습니다. 午後에 空軍中央圖書館見學도 있고하니 討議事項이 없으면 大會를 마칠까 합니다.

議長(李喆珪)=場所도 不便한데 우리들의 當面問題를 眞摯하게 討議해 주셔서 感謝합니다.

—12時閉會하다—